

※ JBIC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 정부기관의 사무라이채권 발행 지원을 위해 채권보증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, 인도수출입은행 앞 채권발행 지원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조사한 자료임

JBIC, 인도수출입은행 앞 사무라이채권 발행 보증 지원

(2014. 12.)

동경사무소

- JBIC은 최근 인도수출입은행의 총 200억엔 규모 엔화표시 외채(사무라이채) 발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인도수출입은행의 일본 내 자본조달을 성공적으로 지원
 - JBIC의 보증 제공에 따라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금융 상황하에서도 인도수출입은행은 '14. 11. 21자로 10년 만기 및 표면금리 0.97%의 양호한 조건으로 채권발행 성공
 - 동 건은 JBIC의 인도수출입은행 앞 '11. 3월(200억엔)에 이은 2번째 채권보증 지원 건임
- JBIC은 일본(자본시장)의 "국제경쟁력의 유지·향상"을 근거로 엔화채권 보증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, 개도국 정부(기관)의 자금조달 지원 외에 자국 투자가 앞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을 통한 사무라이 채권시장 활성화가 주요 목적임
- 한편, JBIC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「개도국 앞 사무라이채권 발행 보증 퍼실리티」를 新JBIC 출범('13. 3월) 이후 「사무라이 채권 발행 지원 프로그램(GATE*)」로 확대하여 적극 지원중

* Guarantee and Acquisition toward Tokyo market Enhancement, 기존 외국정부(기관)에 대한 사무라이채권 보증에 더하여 JBIC의 채권 인수도 가능토록 업무범위를 확대함

- 동 프로그램 하에서, JBIC은 인도수출입은행 외에도 멕시코/터키 등의 정부와 몽골개발은행/튀니지 중앙은행 등 정부 관련 기관 앞으로 총 9건(4,680억엔)의 채권보증을 제공 중
- 특히, 실제 신용등급이 낮은 개도국 기업은 물론 ECA 등 정부계 금융기관조차도 일본내 저금리 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나, JBIC의 보증 지원에 따라 국내 정세가 불안한 튀니지 중앙은행등의 경우에도 양호한 조건으로 채권발행에 성공

※ [참고자료] 新 JBIC 출범 이후 사무라이채권 보증 지원 현황

발행시기	발행인	금액 (억엔)	만기	표면금리 (%)
'14년 11월	인도수출입은행	200	10년	0.97%
'14년 10월	튀니지중앙은행	500	10년	1.61%
'14년 9월	터키정부	1,000	10년	1.05%
'13년 12월	몽골개발은행	300	10년	1.52%
'13년 8월	튀니지중앙은행	224	10년	1.00%
'13년 7월	멕시코정부	806	3,5,6년	1.16%, 1.39%, 1.54%
'12년 12월	튀니지중앙은행	250	10년	1.19%
'12년 11월	인도네시아정부	600	10년	1.13%
'12년 6월	멕시코정부	800	3,5년	1.29%, 1.56%